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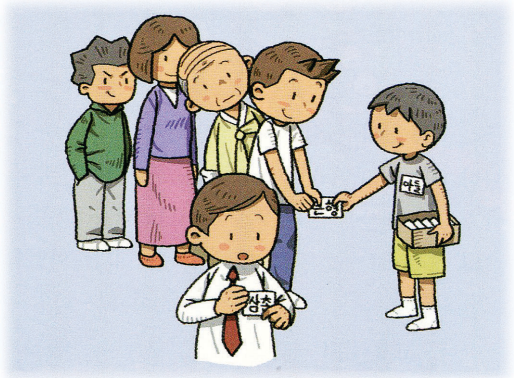
가족의 행복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좌우

제2장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가족은 든든한 울타리예요

I love my family!



가족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

사람이 만든 사회집단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오래된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을 들어 줄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을 할 때는 뜻을 모아 같이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새해에 소망을 말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를 첫 번째로 말합니다. 가족의 행복은 누구나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복이 저절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는 않습니다. 가족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너울북)에서 발췌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잘 따르겠어요

I will respect and be grateful for my parents.

김만중(1637~1692년)은 조선 중기의 벼슬아치이자 소설가였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배 짜고 수를 놓아 돈을 벌면서도 자식들이 알면 마음이 아파서 공부를 못할까봐 몰래 일을 했습니다. 필요한 책은 빌려다 배껴 주기도 했습니다. 김만중도 어머니를 극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고 어머니를 즐겁게 해 드리려고 병아리 울음소리와 어린이 울음소리를 흉내 냈습니다. 글 읽기를 좋아하는 어머니께 밤새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평생 어머니 곁을 떠난 적이 없던 김만중은 남해로 귀양을

가서도 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귀양지에서 한글소설 <구운몽>을 쓴 것도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효를 저지른다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부모님의 크고 높은 은혜에 대해 알려 주셨고, 은혜 갚는 방법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담긴 경전을 <부모은중경>이라 부릅니다.

* 부모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 보아요.
*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있나요?

다른 형태의 가정도 이상한 눈길로 보지 않겠어요

Everyone's families are different, I will not judge or make fun of my friends' families.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하는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홍난파(1897~1941년)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풍요가 세상에 나온 것은 1933년입니다. 그 때의 가족 모습은 할아버지·할머니, 아들·며느리, 손자로 이어지는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가족도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입니다. 개구리 노래가 나오고 한참이 지난 2008년, <완득이>라는 소설이 등장했습니다. 주인공인 완득이는 아버지, 삼촌과 함께 삽니다. 삼촌은 아버지의 친동생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보는 사람입니다. 떨어져 살던 어머니는 찾고 보니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개구리에서 완득이까지 75년이 흐르는 동안 가족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사는 조손 가정,

재혼 가정, 입양 가정 등으로 모습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한 것은 사회가 그만큼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 모습이 달라지니 가족 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네 가족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눈길로 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어떤 가족 형태로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입니다.

*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요.
* 미래에는 어떤 가족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미래의 내 모습 그리며 꿈을 위해 노력하겠어요

I will imagine myself in 10 or 20 years and make my vision come true.

"20대에는 이름을 알린다.
30대에는 사업자금을 마련한다.
40대에는 사업에 승부를 건다.
50대에는 사업을 완성한다.
60대에는 다음 세대에게 사업을 물려준다."

이 글은 다국적 인터넷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1957~) 회장이 얼마후 살에 세운 인생계획입니다. 손정의 회장은 이 인생계획을 하나하나 성공시켰으며 마지막 60대의 계획을 실천하는 중입니다. 10년, 20년은 매우 먼 훗날의 일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10년마다의 계획을 모두 이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러나 내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두면 그 순간이 닥했을 때 결정과 선택이 쉬워집니다. 돈을 얼마쯤 번다거나 큰 성공과 같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국토순례 여행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떠난다든지, 나만의 음악을 만든다는 계획도 근사합니다. 인생설계가 멋질수록 우리는 인생이라는 작품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나요?
*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 보세요.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레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화엄경을 대본 없이 즉설로 강의하는 진귀의 화엄경 강좌



- 대상 : 비구, 비구니, 불교대학을 졸업한 재가불자
- 1학년(약사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9시(2시간)
- 2학년(비로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료증서 수여 및 해외 성지순례 동행
- 수업료는 한학기당(6개월) 30만원 임

- 진귀 수행자와 친견료는 무료이며 각종기도, 천도재와 불교적 방편 및 유사 의료행위 등은 일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 한잔의 친견과 강의만 합니다.
- 진귀의 화엄경 책(15만원)은 교보문고에서 판매중이며 화엄경 강원으로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은행 1005-002-700714 화엄경강원) 입금(15만원)을 하신후 전화로 택배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2016년 1학기 과정부터는 등록 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진귀스님의 화엄경 수행의
가피로 사람들의 몸과 1m이상
떨어진곳에서 마주앉아
차만 마셔도 절을 전혀 못하는
노보살이 절을 삼배하는
기적같은 일들이 강원에서는
누구나 체험 하게됩니다.